

2025 국가기도의 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 주제로 열린다

제74회 국가 기도의 날
5월 1일 오후 7시
충현선교교회

제74회 국가 기도의 날이 5월 1일(목) 오후 7시,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가기도회는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롬 15:13)라는 주제로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개최된다.

기도회는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법조인들, 행정 관리, 군 지도자와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 차세대 선교,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 전쟁의 종식, 전쟁 난민을 위해, 반성경적 가치관에 물든 미국의 당면한 현안, 한국과 북한 등을 놓고 기도할 예정이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회장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는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남가주 한인교회들



제74회 국가기도의 날이 5월 1일(목) 오후 7시, 충현선교교회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의 리더들이 15일 오전에 미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

과 단체들의 국가 기도회 날 행사에 참석을 독려했다. 이를 위해 또 한 4월 27일(주일) 주간을 기도의 날로 선포해서 전 교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드웨어의 강태광牧사는 “특별히 이번 기도의 날에는 참석자들이 기도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기도회 인도자들이 간단하게 3분 정도 도전을 주고 참석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 한다”며 “현 상황에 맞는 기도 제목을 발굴해서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한국과 미

국 정세 등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 기도회 날에는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가 설교할 예정이며, 민종기 목사,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강태광 목사,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 한현

중 목사(크랜셔장로교회) 등 지역 리더 및 차세대 목회자들도 참여해 기도회를 이끌 예정이다.

한편, 미국 국가 기도회 날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안하고,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 의회가 공동 결의해 트루먼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제정됐다.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전통으로 지켜져 오고 있으며,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한 이래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기도회다.

무신론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극적으로 부활했다. 당시 위헌 판결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도회 날’을 선포해, 이 행사가 미국 정치권에 서 갖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북미 박스오피스 2위 돌풍

할리우드 스타 목소리 더해
부활절 시즌 흥행 기대감

한국 제작사가 만든 3D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가 북미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며 눈에 띄는 흥행 성과를 거뒀다. 할리우드 대작들을 제치고 한국 제작 애니메이션이 이처럼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영화 전문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Box Office Mojo)에 따르면, ‘킹 오브 킹스’는 4월 11일 북미 지역 3,200개 극장에서 개

봉해 하루 만에 총 701만 275달러(약 100억 원)의 티켓 매출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할리우드 신작 ‘아마추어’, ‘드롭’ 등을 제친 성과에 대해 시장조사업체 시네마스코어는 관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부여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했다.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는 ‘킹 오브 킹스’가 개봉 첫 주 동안 약 1,800만 달러(약 257억 원)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4월 20일 부활절을 앞두고 흥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제작진과 세계적 스타들의



애니메이션 영화 ‘The King of Kings’ 스틸컷 ©angel.com

협업

이 작품은 한국의 모팩(Mofac)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장성호 대표

가 연출과 각본, 제작을 맡았고 김우형 촬영감독이 공동 제작자로 참여했다. 이나래 기자 → 4면에서 계속



미주기독일보
YouTube
CDTV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여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평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한기홍 담임목사

예수 부활하셨네

행복한 교회 (마11:28)
상급 받게 하는 교회 (계22:12)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마24:14)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7:20
주일 2부 오전 9:10
주일 3부 오전 11:20
주일 4부(대학/청년부) 오전 2:00
EM(영어성인) 주일 오전 9:00, 11:20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 저녁 7:30
특별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찬양 5:15)
토 오전 6:00 (찬양 5:45)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팔드	오전 08:30(주 일) 오전 08:00(주 일)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팔드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4:30(화요일) 오후 08:00(화요일)
CBSTV CH 20.12 KCBS Chicago AM 1590	오전 09:00(수요일)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Radio Seoul AM 1650 미주복음방송 AM 1190 CTS TV 한국(금)	오전 09:00(금요일) 오전 05:30(금요일) 오전 11:30(금요일) 오전 06:00(한국시간)
Radio Seoul AM 1650	오전 06:3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ISmart Broad Casting Network)
SD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아시아계 미국인 정신건강 회복, 디브리핑 캠프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 TCI 연구소(Thriving Congregations Initiative) 주관으로 3월 19일-21일(수-금)까지 3일간 부에나파크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정신 건강을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 회원관리'를 위한 '디브리핑 캠프'가 열렸다.

첫날 19일(수) 오후 3시 30분에 열린 리셉션은 한철주 교수(GMU)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이병구 학장(TCI 프로젝트 디렉터)이, 디브리핑 캠프에 대해, "사역자 및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트라우마나 상처를 이야기로 풀어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살펴보도록 돕는 멤버 케어"라고 소개했다.

그는 "디브리핑 캠프는 GMU 상담심리학 철학박사 과정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기획



그레이스미션대학교 TCI '디브리핑 캠프'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m.edu

된 프로젝트로,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선교적 공동체 발전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개발된 매뉴얼은 교회에서 대략 4-6주 과정으로 선교적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TCI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어 영 리 Hertig 대표(Innovative Space for Asian American Christianity, ISAAC)가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리더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설교를 하거나 남성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불평등이 있다"며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를 통해서 제도적 조직 리더십에 대해 알고 자신의 조직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성 리더십의 성장을 모색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일 교수(GMU 박사원)는 코비드-19 이후 미주 한인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이야기와 연

결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트라우마가 치유된다"고 말했다.

유희주 교수(GMU)는 "선교사의 디브리핑의 목적은 선교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의미를 발견하며, 예상되는 부분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TCI 신앙공동체 성장 프로젝트는 북미주 한인사회와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 선교를 목적으로 릴리제단 기부금 보조를 받아 GMU가 3년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아시아계 미국인 리더십, 가치 형성을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학습공동체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기사 제공

CDTV 미주 기독교일보

무엇을 깨닫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고전 10:31)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들려주세요”

TV 기독교일보 Youtube로 은혜와 유익 나뉨

미주 기독교일보가 유튜브 'TV 기독교일보'를 통해 신앙 콘텐츠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인 '늘 건강하게'와 '늘 새롭게'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은혜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늘 건강하게'는 다양한 전문 의료진(닥터)들을 통해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쉽고 유익하게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늘 새롭게'는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사역자뿐 아니라 평신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이다. 각자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부르심과 응답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전하고 있다.

이인규 목사(미주 기독교일보 대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늘 새롭게'는 이름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간증의 장입니다"라고 전했다.

TV 기독교일보는 영상 중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인 문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간증자로 참여하고, 구독과 공유, 댓글을 통해 응원의 뜻을 함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참여 및 문의: chdailya@gmail.com, 213-434-1170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미주기독교일보-k9>

가온의 빛, HOPE 미술 공모전 시상식

지난 4월 12일, 미주복음방송과 가온갤러리가 공동 주최한 '가온의 빛, HOPE 미술 공모전 시상식'과 가온갤러리의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전 세계 35개국, 85명의 MK 참여 예술로 표현한 복음과 소망

이번 'HOPE 미술 공모전'에는 총 35개국에서 85명의 MK가 참여했으며, 이 중 76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가온의 빛, HOPE 미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미주복음방송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는 개관식에서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성막을 지으셨듯, 가온갤러리도 아이들의 영감 어린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 미주복음방송 사장은 "첫 전시가 MK들을 위한 특별 공모전

으로 시작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제니퍼 홍 가온갤러리 디렉터는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로 준비한 결과물"이라며 "85명의 MK들이 보낸 편지와 작품을 통해 우리가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코버트 김 장로(감사한인교회)는 "이 프로젝트는 선교지의 아이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MK들이 그림을 통해

세)은 현지 선교사가 무장 강도에 의해 순교당하는 사건을 겪은 후, 가족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생명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멕시코 MK 성가람(19세)은 중 공모전 준비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았다고 고백했고, 태국 MK 김유겸(19세) 역시 오랜 우울증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심사위원 폴 아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작품들이야말로 예술 문화 회복의 시작"이라고 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23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대상: 태국 국하영(17세)의 생명의 빛 공동 최우수상: 케냐 나하린(20세)의 미래를 향한 날갯짓, 필리핀 배하은(16세)의 무덤가 아이

이 외에도 우수상 5명, 장려상 5명, 소망상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하은 학생은 "화가의 꿈을 품고 있었으나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번 수상이 큰 격려가 되었다"며 "작품에 담긴 무덤가 마을 아이들의 삶을 위해 상금을 모두 선교사역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미주 한인교회 VBS 프로그램 지원 강습회

동양선교교회와 히즈쇼가 협력하여 소규모 한인 교회들을 위한 VB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현장강습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교회들에게 약 \$200 디렉터KIT (2GB 영어 VBS 디지털다운로드)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디렉터 KIT
무료 제공 증정
온라인·오프라인 참석교회



소규모 교회
적은 교사로
가능한 VBS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VBS 커뮤니티



시간: 4월 26일(토) 오후 2시~4시 30분 (LA 기준)
장소: 동양선교교회 본당 및 온라인 (미국 전역 참여 가능)
현장 이벤트: 히즈쇼 살아나는 성경 박물관 전시
신청: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www.omic.org

동양 선교 교회

5월 Early VBS 등록 안내

동양선교교회에서 5월 가정의달을 맞아 5월 2일 금요일부터 5월 4일 주일까지 3일간 Early VBS를 개최합니다. 한국 히즈쇼의 Bible party-에스터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VBS에 오셔서 어린이날을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보세요!



5/3
토요일

BOUNCE

특별히 5/3(토) 오후에는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바운스놀이 가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세요!

OMC VBS 신청




5월2일(금) / 5월3일(토) / 5월4일(주일) 3일간	
5/2(금)	오후 5시 ~ 9시 (저녁식사 제공)
5/3(토)	오후 12시 ~ 4시 30분 (점심식사 제공)
5/4(주일)	오전 11시 30분 어린이 예배 시

대상 : 만 3세 ~5학년까지의 어린이
회비 : \$20 (per Child)
등록 및 문의 : QR 코드를 통해 링크로 등록해주세요.
등록문의 : omcedu1004@gmail.com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하늘바라기



©Pixels.com

군중 속에 외침

- 김은주

군중 속에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 침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찾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 외침은 사랑하는 이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다

최성민 목사, “생명의 샘물 같은 공동체”



지난해 충청선교교회에서 남가주교협 주관으로 열린 LA 교계 부활절 연합 예배. ©기독일보

생명샘교회(최성민 목사)가 담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13일 오후 4시에 거행했다.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최성민 목사는 답사에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기도와 격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제 가족이 생명샘교회를 만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됐다. 앞으로 저희가 에베에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땅끝까지’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의 증거처럼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생의 샘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모든 섬김 위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린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서오석 목사(CRC 한미노회 서기)는 “여호수아 1장 5-6절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으로 축사한 다니엘 뉴만(아주사퍼시픽대학교 목회학 박사 디렉터) 교수는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며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부활하게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1대 담임 목사인 문상면 목사의 인도, 이천선 목사(CRC 한미노회 회계)의 기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의 설교, 임바울 목사(전 CRC 한미노회 서기)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예배는 정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맥 기자
교회 주소: 18718 Grayland Ave, Artesia, CA, 90701 문의: 562-865-6588

신화와 성경해석 컨퍼런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오는 4월 21일 오후 6시(미국 서부시간), 본교 성경해석학 교수이자 제2성전기 문헌 연구자인 이상환 교수를 초청해 “신화와 성경해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상환 교수는 신진 학자로서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교에서도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Re: 성경을 읽다』, 『신들과 함께』, 『아이가 묻고 아빠가 답하다』 등 연이은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저술해 왔다. 최근의 저서인 『신들의 신 예수』는 출간 한 달 만에 재인쇄가 들어가며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 이상환 교수는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리스-로마 신화적 배경이 성경 본문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조명할 예정이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로마라는 특정 문화권 내에서 기록되었기에, 그 문화적 배경과 사고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성경 본문의 원의(原意)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중요한 해석학적 전제를 함의한다. 이상환 교수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당대의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1차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현대 독자들이 성경을 보다 풍성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특히 그리스-로마 신화가 신약성경 이해에 제공하는 핵심 맥락과 그 적용 방식을 다루며, 성경 본문을 1차 독자의 시선으로 재조명하게 된다. 이상환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그리스-로마 신화적 배경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발견되는 새로운 해석학적 통찰”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미드웨스턴 온라인 컨퍼런스는 공개 강의로 열리며,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하여’의 비전으로 세워진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는, 미주 한인교회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려진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합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OC는 나침반교회에서 민경엽 목사의 설교, LA동부지역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박선호 목사(늘 푸른교회)의 설교,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지구촌교회(김준태 목사, 25 Garnesy Ave.)에서 고의용 목사(베이커스필드 사랑의교회)의 설교, 라스베이가스 지역은 라스베이가스 중앙교회(임인철 목사, 7570 Peace way)에서 조웅철 목사(갈보리 장로교회)의 설교로 드린다.

LA북부 지역 연합 새벽예배

LA 북부지역은 20일 오전 6시에 새생명선교교회(백현 목사, 전화 213-269-9435, 주소 9901 Tujunga Canyon Blvd. Tujunga, CA 91042)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

뉴송교회, 라크라센타 새빛교회, 브림교회, 성문교회, 새생명선교교회, 실만한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어노인팅교회, 연합갈리교회, 행복한 우리교회 등 LA 북부 지역 성도들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문의: 황규동 목사 213-973-8553) 주디 한 기자

▶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OC지역: 5시 30분, 나침반교회 설교 민경엽 목사
LA동부: 5시 30분, 아름다운교회 설교 박선호 목사
베이커스필드: 6시 지구촌교회 설교 고의용 목사
LA북부지역: 6시, 새생명선교교회 라스베이가스: 6시, 중앙교회 설교 조웅철 목사



2022년도 LA 교계 부활절 연합 예배. ©기독일보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5/ 26(월)~27(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슬로, 바이블(공저)



켄트 에드워즈 박사 네러티브 설교 세미나

미성대학교, 미주복음방송
공동 주최, 5월 15일(목)

미성대학교(AEU)와 미주복음방송은 공동주최로 오는 5월 15일(목), 설교학의 세계적 권위자 ‘켄트 에드워즈 박사(Dr. J. Kent Edwards)’를 초청해 “청중에게 들리는 이야기식 설교”를 주제로 네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의 이야기 본문(Biblical narrative literature)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켄트 에드워즈 박사.

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과 몰입도 높은 설교 전달 기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청중과 성경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해석 훈련과

함께,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개성 있고 감동 있는 설교를 개발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닌, 설교에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의 훈련으로 이루어져, 설교자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사로 초청된 켄트 에드워즈 박사는 탈봇 신학교 설교학 및 리더십 명예교수이자 복음주의 설교학회(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설교학 및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정받는 학자이자 실천가다.

그는 덴버 신학교에서 설교학 박사(D.Min.)를,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다문화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박사(Ph.D.) 학위를 취득했으며, 35년 이상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목회자 및 교회 개척자로 섬겨왔다.

그는 전 세계 교회와 신학교, 학회 등에서 활발히 강의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 ‘깊은 설교’ (Deep Preaching)와 ‘일인칭 강해 설교’ (Effective First-Person Biblical Preaching)는 설교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본 세미나는 목회자, 신학생, 설

교 사역에 관심 있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만 등록 할 수 있다.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이다.

행사개요

일시: 5월 15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

대상: 목회자, 신학생

등록: 선착순 50명 / 점심 제공

문의: 미성대

학교 323-643-

0301미주복음

방송 714-484-

1190



동양선교교회, VBS 프로그램 지원 강습회

동양선교교회와 히즈쇼가 협력하여 소규모 한인교회들을 위한 VB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현장강습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교회들에게 약 \$200 디렉터 KIT(2GB 영어 VBS 디지털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간은 4월 26일(토) 오후 2시~4시30분(LA기준) 동양선교교회 본당 및 온라인(미국 전역 참여 가능)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히즈쇼 살아나는 성경 박물관 전시도 진행

될 예정이다. 신청은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www.omc.org 나 QR코드 스캔 후 등록하면 된다.

또한, 동양선교교회에서는 5월 2일 금요일부터 5월 4일 주일까지 3일간 히즈쇼의 에스더 이야기를 주제로 Early VBS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3세~5학년 어린이이며 회비는 \$20(per Child)이며, QR코드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VBS 강습회

4월 26일(토) 오후 2시~4시30분, 동양선교교회 본당 및 온라인(미국 전역 참여 가능)

▶어린이날 행사개요

5/2(금)오후 5시~9시(저녁식사제공)
5/3(토) 오후 12:00~4: 30 (점심식사 제공, 바운스 놀이)

5/4(주일) 오전 11: 30: 어린이 예배
등록문의: omcedu1004@gmail.com



Go Fish와 함께 한 어린이 찬양 콘서트



새생명비전교회 어린이 사역부에서 고피쉬를 초청해 어린이 콘서트를 개최했다. ©기독교일보

새생명비전교회 어린이 사역부에서 찬양 밴드인 고피쉬(Go Fish)를 초청해는 4월 11일-12일(금-토) 어린이 전문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고

피쉬는 음악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리라는 사명으로 미네소타에서 아카펠라 팀으로 시작된 크리스천 밴드로, 현재 Go Fish 멤버로는 Jamison Statera, 가수 Chad Graham, DJ Chase Akers가 있다. 이들은 모두 밴드의 본거지인 테네시주 내슈빌 출신이다.

이번 부활절 축제는 새생명비전교회 어린이 사역팀(Kids Rock) 주관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한국 애니메이션...>에 이어서

음악은 ‘최종병기 활’, ‘명량’, ‘1987’ 등을 담당했던 김태성 음악감독이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는 찰스 디킨스가 자녀를 위해 집필한 ‘우리 주님의 생애’를 원작으로 하며, 성경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타카>, <킬빌>의 우마 서먼, <눈>, <인사이드 르윈>의 오스카 아이작, 피어스 브로스넌, 케니스 브래너, 마크 해밀, 벤 킹슬리 등 세계적인 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했다.

◆독립 배급사의 전략적 성공


배급을 맡은 엔젤 스튜디오는 개봉에 맞춰 가족 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키즈 고 프리’(Kids Go Free)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어른 한

명이 티켓을 구매하면 어린이 한 명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가족 단위 관객 유치에 효과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가능성

장성호 대표는 한국 CG·VFX 업계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인물로, 모픽 스튜디오는 영화 ‘해운대’, ‘명량’, 드라마 ‘태왕사신기’, ‘별에서 온 그대’,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등 다수의 작품에서 시각효과 작업을 맡아 온 경력이 있다.

이번 흥행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기술력과 스토리텔링 역량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 콘텐츠가 북미를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보다 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예수 부활하셨네!

2025년 남가주교계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2025년4월20일(주일)새벽6시



회장 샘진목사



강사 정해진목사



수석부회장 김은목목사

장소: 평화교회(김은목목사 시무)
2538 W. Pico Blvd. LA, CA 90006
강사: 정해진목사 (남가주교협 33대 중경회장)
문의: 평화교회 / 213-249-2467
충무 최경일목사 / 213-905-0380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예수 부활하셨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남침례교단 (SBC) 6대 신학교
- 북미 최대규모로 한국학생 720명 재학중
- F-1을 위한 I-20 발급/100% 온라인으로 가능
- ATS 및 HLC 정식인가/저렴한 등록금
- 신약학 철학박사 (Ph.D.)
-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 교육학 박사 (Ed.D.)
-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
- 성경상담학 석사 (MABC)
- 신학연구석사 (MTS)
- 워십미니스트리 (MTS-NM with 어노인팅, 아이자야썅스틴원, 워십인크라이스트)



박성진 학장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ks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5001 N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시니어 건강칼럼 - 근육관절통증

이제는 통증의 근본을 잡아야한다

"PRP 주사, 통증 근본을 잡다"

“주사 한 번 맞으면 괜찮아진다더니, 이제는 예전만큼 낫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요.”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무릎이 아직도 쑤시고 계단 오르기가 무섭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약이나 수술만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의 자연 치유력을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PRP 주사입니다.

내 몸의 재생을 돕는 치료 - PRP란?

PRP(Platelet-Rich Plasma)는 말 그대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피 속에는 상처를 낫게 하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혈소판은 손상 부위를 감지해 회복을 유도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PRP 주사는 환자의 혈액을 뽑아 고속 원심 분리기로 돌려 혈소판만 농축한 뒤, 그 성분을 염증이 있거나 손상된 부위에 직접 주사합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법입니다.

관절만이 아닙니다 - PRP의 다양한 쓰임새

PRP는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 두피에 주사해 모낭 세포를 자극, 모발 성장을 돕습니다.
피부 재생: 여드름 흉터, 잔주름, 탄력 저하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어깨, 팔꿈치, 발목 등 만성 통증 부위 수술 후 회복 가속화: 조직 회복을 빠르게 유도합니다.
이미 미국, 유럽,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도 활발히 사용 중이며, 자연유래 성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도 적고 안전성도 높습니다.

시니어에게 PRP가 더욱 필요한 이유

시니어분들은 관절이나 근육, 인대에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기 쉽고, 조직 회복 속도는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PRP 주사는 약이나 스테로이드 주사로 해결되지

않는 만성 통증에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피를 활용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 부담 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통증 개선 외에도 관절 기능의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PRP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에모리대학교 재활의학과 Dr. Kenneth Mautner의 연구에서는, PRP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6개월 후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리졸리 정형외과 연구소의 Dr. Giuseppe Filardo 연구팀은, PRP가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 개선과 움직임 회복에 있어 기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PRP 주사,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약을 오래 복용해도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시거나, 무릎, 어깨, 손목 등의 반복적인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분 또 스테로이드로 반복적인 시술을 받아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PRP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시니어를 위해 PRP 시술을 100% 커버하는 클리닉

충분히 쉬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치유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자연 치유력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깨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각 지역 클리닉의 환자들에게 PRP 시술을 비롯한 모든 통증 관련 시술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지역 클리닉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면, PRP 통증 시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센터메디컬클리닉-가든그로브점 (임유일주치의)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714. 583. 8569)

센터메디컬클리닉-로렌하이츠점(송홍우주치의)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626. 363. 4661)

“토마스 선교사의 신앙, 연구 · 계승해야 할 중요한 유산”

총신대 선교대학원 · 총회기념사업특별위, 복음 전래 160주년 기념 포럼 개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109회 총회 기념사업특별위원회가 14일 오전 총신대 종합관 2층 주기철기념홀에서 ‘토마스 선교사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토마스 선교사 복음 전래 16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욱 박사(총신대 명예교수)가 ‘한국 선교 140주년 회고와 전망’ ▲이영식 박사(총신대 신학대학원)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 관련 서지학적 연구’ ▲유해석 박사(총신대 선교대학원 주임)가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그의 선교적 유산’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한국교회의 문제해결, 선교적 교회가 대안

김성욱 박사는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뤄냈으며, 현재 미국교회와 함께 세계선교의 선두에 서 있다. 이러한 성과가 하나님의 절실한 명령 앞에 순종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각성과 부흥을 유지하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의 정체와 함께 신학생 및 선교사 지원자의 감소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이를 극복하는 사역이 시급하다”고 했다.

세계 각국의 선교 지도자들 또한 한국교회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21세기 한국선교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난민선교, 비전도 종족 선교, 평신도 전문인 선교, 텐트메이커 선교, 비즈니스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천과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토마스 선교사 복음 전래 160주년 기념 포럼 참여자 단체 사진.

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선교의 효율성 확대를 위한 국제 선교단체들과의 협력지향적인 선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선교사역은 다시 오실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성장이 그 열매이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의 문제해결은 선교적 교회가 대안이다. 그리고 개혁주의 성경적 교회론의 회복이 선교부흥의 해답”이라고 했다.

◆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제너럴 서먼호 사건과 분리된 시각 필요

이영식 박사는 “토마스 선교사(Robert Jermain Thomas, 1839-1866)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 조선’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한했다”고 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성경전파 대리인으로, 1866년 무장 상선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조선에 입국했다”며 “「고종실록」 등에 따르면 제너럴 서

먼호의 항해는 불법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그리고 “국내에 소개된 선교사들의 영문 문헌은 초창기에는 서먼호를 단순한 무역선으로 기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토마스 선교사의 조선 내 죽음을 ‘순교’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국내 교회사 학자들과 한국교회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인정해 왔으며, 그 정신은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행적과 서먼호 사건은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또한 “선교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초기 토마스 선교사 연구에 기반을 마련한 고(故) 오문환 장로의 헌신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일부 연

구자들도 존재한다”며 “이들은 문헌비평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타인의 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객관성을 주장하며 주관적 해석을 밀어붙이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 토마스 선교사, 한국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

유해석 박사는 “토마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두 차례 조선을 방문한 끝에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로 순교한 인물로, 그의 죽음은 한국교회가 선교 정신을 계승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했다.

토마스 선교사는 17세부터 설교를 시작했으며, 1859년 대부흥 당시 웨일스 부흥운동에 참여해 156회에 걸쳐 설교를 전한 신학도 출신이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고, 그 신앙에 따라 조선을 찾았다. 그의 선교 활동은 제너럴 서먼호 사건과 맞물리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다. 유 박사는 “현재까지의 비판적 연구들이 제너럴 서먼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토마스의 선교 전체를 조망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토마스를 미국 제국주의의 선봉으로 비판했고, 북한 역시 그를 ‘미국인 첩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 박사는 “토마스의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은 그가 속한 시대와 정치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의 순교는 한국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끝으로 유 박사는 “토마스가 남긴 신앙과 사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연구하고 계승해야 할 중요한 유산”이라며 “기독교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성립할 수 없는 역사”라고 했다. 한편, 앞서 김영민 교수(총신대 선교대학원)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예동열 목사(사무총장)의 기도, 장봉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의 설교, 김동관 목사(부위원장)의 축도, 배만석 목사(위원장)의 인사, 박성규 총장(총신대)의 축사, 유해석 교수(전공주임)의 광고 순서로 진행됐다.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고전 1:21)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장봉생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고, 말씀이 전해졌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리에 있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넘어, 우리들의 사역 현장 속에서 동일한 여정으로 이어지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전한 배만석 목사는 “선교는 소망이며 대안”이라며 토마스 선교사 160주년 기념 포럼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축사를 전한 박성규 목사는 “토마스 선교사는 유능한 인재였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조선의 대동강에서 피를 흘렸다. 그의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에 있어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의 복”이라며 “토마스 선교사 복음 전래 16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유능한 인재가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한교총, 선원예술단 공연에 “파룬궁 위장 포교 목적”

한교총은 최근 회원 교단에 이와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선원예술단의 공연이 중국 전통문화를 복원·전승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특정 종교 교리를 예술 형식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원예술단은 오는 5월 대구, 춘천, 과천 등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한교총에 따르면 선원예술단의 공연은 신격화된 존재의 개입, 종말론적 집단 구원 장면, 날개 달린

창세주의 등장 등 종교적 상징을 반복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한교총은 “파룬궁의 교리와 세계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구성”이라며 “특히 공연 후반부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교리적 메시지는 관객의 종교적 판단을 우회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종교적 성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문화예술의 외형을 통해 신념체계를 전달

하는 위장 포교”라며 “예술이라는 포장을 통해 신념을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것은 관객의 선택권과 종교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원예술단과 관련해 국내외 이단 연구기관 및 언론은 파룬궁과의 밀접한 연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교총은 “특히 선원 공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매체 The Epoch Times는 공연 관련 일방적 찬양 기사로 여론 조작 의혹을 받아

왔다”며 “또한 전직 단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원은 단순한 예술단체가 아닌 파룬궁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조직된 구조적 공동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는 2018년 총회에서 파룬궁을 신격화와 절대구원론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비로 규정하며 “파룬궁은 이혼자와 그의 교리를 절대적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정 파

탄, 정신 이상, 자살, 살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교총은 “교계와 시민사회가 이러한 위장 포교 시도에 대해 공동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화시설 대관이나 문화기획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종교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경호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남가주주안예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11시 (플러튼)
토요새벽 6시 (플러튼)
수요일 오후 6시 (엘에이)



김상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44
T. (213)422-6388 , (714)452-1555
www.inchristusa.org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라

라구나힐스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찬양예배 수요일 오전 11:00
중보기도회 목요일 오전 9:30
샬롬 Q-cord 금요일 오전 10:00
하늘찬양대 주일 오전 10:00, 오후 1:30



림학춘 담임목사

부활주일예배 4월 20일 오전 11:30
고난주간 새벽기도
4월 15일-19일 오전 6:00

주소 및 전화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http://www.lagunachurch.com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마지막 금)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남성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동부사랑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4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 (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ESCC), eastsarangweb@gmail.com
www.eastsarang.org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만남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다우니제일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FC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친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0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장년/교육부서)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유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3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캐나다 최대 기독교대학과 합병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대학교. © YouTube/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이하 TEDS)가 시카고 지역의 트리니티 국제대학(TIU)을 떠나 캐나다 최대의 기독교 대학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WU)과 제휴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리니티 신학대학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TEDS는 공동된 신앙 선언과 기원 이야기를 지닌 두 기관을 하나로 묶은 연합인 TWU의 후원 하에 움직이는 조치를 취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TEDS는 TWU의 신학교가 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무오류의 말씀이 지닌 변혁적 힘을 증거하도록 남성과 여성을 훈련하는 사명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교회의 삶을 위협하는 상충되는 이념에 대한 비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두 기관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합병에 동의했다.

TEDS는 2025-2026학년 동안 일리노이주 배너번에 위치한 현재 위치에 남을 예정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랭글리로 이전하는 것은 2026년 가을 학기에 맞춰 이루어질 예정이다.

TEDS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CP에 “그 시점까지 TEDS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대면 및 온라인 옵션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다. 1897년 설립되어 현재는 미국 복음자유교회(Evangelical Free Church of America)의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TEDS는 1963년 일리노이주 디어필드로 이전했다. 이 기관은 스스로를 ‘복음주의 사상의 중심지’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주의 신학 전통 전반에 걸친 교수진과 학생들을 모았다”고 밝혔다. 1962년 트리니티 주니어 칼리지로 설립된 TWU는 캐나다 서부 해안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EFCA(캐나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약 6천명의 학생을 보유한 TWU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사립 기독교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美 성인 41% 성경 읽는다...
수년 만에 반등

미국에서 성경을 읽는 남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ABS)는 지난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성인 2,6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미국 성경 현황’(State of the Bible USA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성경을 읽는 미국인의 비율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절반 이상이었지만, 2022년에는 40%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38%로 더욱 낮아졌다”며 “그러나 2025년 현재는 41%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세대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생)에서 크게 증가했다. 2024년에는 밀레니얼 세대 중 30%만이 성경을 읽는다고 답한 반면, 올해는 그 수치가 39%로 증가했다. 또한 ABS는 모든 세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성경 참여도가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는 “다른 모든 세대에서 여성은 성경을 읽는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거

TWU와 TEDS의 협력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TEDS 캐나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캐나다 복음자유교회(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총무 빌 테일러(Bill Taylor)는 성명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교가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과 함께하게 되어, 교회와 지역 사회가 기독교 신학 교육과 사역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TWU는 학생들에게 남녀 간 혼인 외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체 성약’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이전 정책을 놓고 수년간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2018년 6월, 캐나다 대법원은 성소수자(LGBT) 개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계약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대학이 제안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거부한 결정을 지지했다. 이에 대응하여 TWU는 2018년 8월 학생들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수진과 직원은 여전히 동의해야 한다.

TWU 이사회는 당시 “기독교 관점과 기본 철학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TWU를 변형하는 기독교 신자 공동체로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에 따라, 2018-19학년도부터 대학에 입학하거나 계속 다니는 학생에게 공동체 계약이 더 이상 의무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TEDS는 학생들을 위한 ‘공동체 표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정직, 절도, 혼전 성관계, 낙태, 간통, 동성애적 행위, 음란물 사용, 욕설, 헐담, 인종 차별, 타인의 권리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TEDS 대변인은 신학대학이 TWU로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요건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TIU는 재정 자원과 학생 등록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봄 학기 말 플로리다 캠퍼스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미경 기자

ABS 제니퍼 홀로런(Jennifer Hol-loran) 회장은 “미국에서 2024년 성경 판매가 다시 증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며 “최근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반등이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남성들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미국인의 행복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불안하며 불안증을 느끼는 이 세상에서 성경만이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사가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다.

신미셀 기자

“AI 시대, 신앙과 기술의 만남”
美서 ‘미셔널 AI 2025’ 열려



패널들이 텍사스주 플라노에 위치한 윈 커뮤니티 처치 캠퍼스에서 열린 미션 AI 2025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Christian Post

인공지능(AI)이 놀라운 속도로 세상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분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강력한 기술이 신앙, 노동, 인간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 세계 30개국, 100여 개 기관에서 5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텍사스주 달라스 교외에 위치한 윈커뮤니티교회 플레이노 캠퍼스에 모였다. ‘미셔널 AI 2025(Missional AI 2025)’ 정상회의가 “AI 충돌: 함께 미래를 형성하다(AI Collision — Shaping the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3일간 열렸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이번 회의가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가 ‘하나님 나라(Kingdom)’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탐구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연사로 는 인텔 전 CEO이자 Gloo 회장인 팻 겔싱어(Pat Gelsinger), 바나그룹 CEO 데이비드 키너먼(David Kinnaman),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메타의 NLLB AI 부문, 맥킨지, 마스터웍스, 드라마 ‘더 초슨(The Chosen)’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기조연설과 분과 세션에서는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스템인 ‘에이전틱 AI(agententic AI)’와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 ‘웹 3(Web3)’를 활용한 미래 선교 전략까지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데이터의 향기: AI를 통한 성경 번역 사역의 비옥화(The Sweet Smell of Data: Fertilizing the Work of Bible Translators with AI)’라는 패널 세션에서는 성경 번역에 있어 AI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개발자 다니엘 윌슨(Daniel Wilson)과 제이콥 불록(Jacob Bullock)은 AI를 인간 번역팀을 모사하는 ‘지원 도구’로 설명하며, AI가 번역 과정의 반복적 업무를 줄여 주되 핵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록은 “AI는 단순한 반복 작업을 보조해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준다. 본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언어 공동체와 번역자가 중심이 되는 작업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터넷이 없거나 보안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한 성경 번역이 가능한 XRI의 오프라인 AI 기기와 같은 혁신 기술도 소개됐다. 윌슨은 “성경 번역이 필요한 지역 중에는 인터넷이 없거나 정부가 이를 탐지해 억제하는 지역도 많다”며 “이 장벽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 리처드 장(Richard Zhang)은 기조연설에서 AI 개발자이자 기독교인으로서 AI 발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찰을 나눴다. 그는 AI가 인간과 기계,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본성과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AI는 인간이 아니던 부분을 드러내며, 인간의 사고 능력이 기술로 대체되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지성이 값싸지는 시대,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AI가 도덕적 경계를 넘을 경우 인간의 오만함을 조장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AI를 통해 불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며 “이 모든 갈망은 결국 ‘거룩함’에 대한 인간의 깊은 갈망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델러스신학교의 존 다이어(John Dyer) 박사는 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우리를 형성하는 도구”라며 “도구 사용은 창세기의 창조명령에도 포함된 인간의 본연적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어 박사는 AI가 공감능력을 갖추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와의 대화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청받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30분 동안 비판 없이 들어줄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AI보다 더 잘 듣는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반문화적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호수아 8장 1절을 인용하며 “기술을 다시 하나님의 선한 선물로 회복시키자”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트럼프, 고난주간 성명 발표
“신앙 수호 약속 새롭게 다진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4일(이하 현지시각)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는 성명에서 “부활주일의 영광은 예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고난과 처형을 견디신 십자가의 희생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속이 이뤄졌으며, 그 부활을 통해 신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 고난주간에 (영부인) 멜라니아와 저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한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온 인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이 없이는 부

활의 영광이 올 수 없음을 깨닫는다. 지상 최후의 시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깊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문, 그리고 처형을 거머쥔 감당하셨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 부활절 아침, 돌이 굴러지고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빛이 어둠을 압도했다. 이는 죽음이 최후의 심판자가 아님을 보여 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낙태와 종교 자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행정부는 학교, 군대, 직장, 병원, 그리고 정부청사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다진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며,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윤준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אי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카데미)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아침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목요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침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रेस어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어머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한국전 참전 용사에 평화의 사도 메달 전달

텍사스 남부에 살고 있는 93세 한국전 참전용사가 G2G 선교회(대표 이훈구 박사)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평화의 사도 메달”을 받았다.

이훈구 박사는 한국전 참전용사 잭 플로이드가 이 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텍사스 남부의 작은 도시 미션 시티이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한국전에 참여하셨으며 93세 된 신사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의 전화기 속에는 한국전에 참여했던 당시의 사진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진을 나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거수 경례를 하면서 “충성”이라고 인사를 하였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휴스턴 영사관에 문의했다. 한국전 참전 증빙서류 DD214를 보내면 평화의 사도 메달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DD214를 받아서 메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스턴 영사관에 보냈더니 일주일후에 평화의 사도 메달이 그분 집으로 전달되었다. 그분은 메달을 들고 나의 사무실에 와서 대한민국 정부와 휴스턴 영사관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셨다.”

미합중국 해병대원(USMC) 잭 플로이드가 직접 전한 감사와 한국전 참전 이야기
“저는 2025년 4월 대한민국 국가

보훈처에서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Ambassador for Peace Medal)을 받았습니다. 이 메달은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전투 작전에 참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이 상을 받도록 선정해 준 이훈구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의 우정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이 명예로운 메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1952년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전투 작전에 대한 제 경험과 기록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억과 제가 보유한 실제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는 1951년부터 1970년까지 미 해병대(USMC)에서 복무하며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저는 93세이며 텍사스주 미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여 주요 활동

1951년 12월 14일: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미 해군 수송선

에 탑승.

1952년 1월 2일:한국 속초리에서 하선 후, 트럭을 타고 남한 동부의 38선 전투 지역으로 이동.

1952년 1월 3일:미 해병 1사단 1연대의 대전차 중대에 배속 됨. 북한군과의 전투에 잠시 참여.

1952년 1월 24일: 1대대 1해병연대의 무기중대에 합류. 38선을 방어하며 북한군 탱크 침투를 저지하는 전투에 참여.

1952년 7월: 미 해병 1사단 (15,000명 이상)이 남한 동부 38선에서 서부 38선으로 이동. 이 지역은 판문점 ‘평화촌’ 근처였으며, 무기중대가 미 해병대 진지 방어 임무 수행.

1952년 7월 22일: 1대대 1해병연대의 본부 및 지원중대(H&S 중대)로 이동.전사자(KIA) 및 부상자(WIA) 보고 담당 ‘사상자 기록 담당관’으로 복무.

1953년 1월 10일: 인천에서 미 해군 수송선을 타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귀국

이훈구 박사는 “위의 기록은 한국전쟁 당시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앞으로도 이런 분이 주위에 계시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연락을 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주디 한 기자

GBC & GMU 공동주최 부모교육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와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공동 주최하는 ‘믿음으로 대화하며 함께 살아내는’ 부모교육 세미나가 오는 5월 7일(수) 오전 9시 30분-6시까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된다. ‘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이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강사’로 활동한 이진아 대표가 ▲‘자녀를 위한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을 강의하고, 안송주 교수(GMU학부 및 다국어 트랙 학장)가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과 교육 전략’을, Estee Song 교수(TBRI Practitioner)와 이미지 디렉터(한인 커뮤니티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디렉터)가 ▲ ‘부모를 위한

자기관리 및 ASD Friendly Church Initiative’에 대해 함께 강의한다. 또한 마지막 강의는 이수영 교수(GMU CPCI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 교육학 철학박사 프로그램 학과장)가 맡아 ▲‘부모자녀 대화법의 실제와 Family Conversation Kit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그룹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미나 참가 안내

일시: 5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장소: 미주복음방송 공개홀

참가 대상: 부모, 조부모, 목회자 및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교사 (선착순 50명)
참가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등록 마감: 4월 25(금) 오후 6시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미주복음방송(714-484-1190)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 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드립니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수 부활하셨네

웨스트힐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 어노인팅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주일~금)
오전 6:00(토)
EM예배(1부) 오전 9:00
EM예배(2부) 오전 11:00
한어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884-2391



예수 부활하셨네

오레곤 베엘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2:00
수요온라인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391 SW Blanton St. Beaverton, OR 97078
T. (503) 649-3990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스도의 흔적을 행하는 주님 Church (갈6:17)

주님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0:30
EM 예배 오전 10:30
차세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한글학교 오후 12:40



최현규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주일예배 장소 : Sonora High School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사무실 :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T. (626)901-9191 / www.joonim.org




예수 부활하셨네

이 땅의 참 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입니다.

코너스톤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한어 예배 오전 9:00
2부 영어 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6:00(토)



이종용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예수 부활하셨네

LA임마누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T. (714)743-0141



예수 부활하셨네

서부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07:3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화~토)



김진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80 W. 220th St. Torrance, CA 90501
T.(310)328-7020 main@wpca.org <https://wpca.org/>

구봉주 칼럼

모*각 효과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Butterfly Effect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한 편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시간이 지나, 결국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으로, 작은 원인이 시간이 지나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chain reaction 연쇄반응”입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크고 놀

라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장로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가게 된, 식당은 가든그로브에서 유명한 식당이 댜, 또 다른 분점이었습니다. 음식 맛은 이미 알려진 터라, 당연히 맛있으리라 기대하고 갔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 식당은 일찍 가지 않으면 오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오랜 상식이어서, 일찍 가서 기다리지 않고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차장이 꽉 찬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식사를 한 날은 평일 점심이었고, 식당이 있는 몰에는 마켓이 있어, 주차장이 매우 넓고 특히 평일에는 한산하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저의 의구심을 자극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차량이 식당에 온 손님들의 차량

들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하길, 식당이 생기고 부터, 몰에 그로서리 마켓과 다른 비즈니스가 호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하나가 몰 전체에 호황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식사하고 나오는 다른 교역자들에게 제가 보고 느낀 상황을 설명하면서, “모*각 효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남의 상호를 밝히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괜히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들 어느 식당인지는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각 효과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효과”, “믿는 자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는 자가 서 있는 곳은 영적 호황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섬기는 직장 and 비즈니스는 잘 되야 합니다. 옆에 다른 비즈니스도 복되게 하는 파워가 있

어야 합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는 믿지 않는 자는 그 믿는 자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요즘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찌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고, 회복되고, 위로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뜨겁고 부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직장 and 사회가 밝고 깨끗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 갖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복음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고, 악한 영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곧 사명임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효과”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형의 시간의 지문

샘플링된 창조의 섭리를 통해 본 하나님의 설계 증거



이 주 형 대표
CM 홀딩스

1. 디지털 우주의 발견: 픽셀화된 현실

20세기 초, 양자역학의 발전과 함께 인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우주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물질, 에너지, 심지어 시간과 공간조차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 단위,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픽셀’처럼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최소 단위는 ‘플랑크 시간’(Planck time)과 ‘플랑크 길이’(Planck length)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각각 약 5.39×10^{-44} 초와 1.62×10^{-35} 미터이다. 이보다 더 작게 쪼갤 수 없다는 물리학의 선언은,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가 마치 고해상도 디지털 화면처럼 픽셀화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리학적 인식은 디지털 신호 처리, 컴퓨터 과학, 영상 기술 등의 현대 기술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영상통화, 음악 스트리밍, 실시간 게임 등의 기술도 이와 유사한 ‘샘플링’ 방식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한다. 다

시 말해, 현실 세계를 축소하고 축약해서 핵심적인 정보만을 전달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 기술의 핵심 개념이 이미 우주의 구조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이 우주가 지능적인 설계에 의해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한다.

2. 영상통화, 음악, 그리고 ‘샘플링된 우주’

영상통화를 예로 들어보자. 모든 프레임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면 데이터량은 폭증하고 통신망은 마비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앱은 정지 화면은 저장하고 변화가 생기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전송한다. 이것이 영상통화의 핵심 원리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귀가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원음을 ‘샘플링’하여 전송한다. CD 품질은 44.1kHz, 고해상도 음원은 96kHz 이상으로 샘플링되는데, 이는 결국 인간의 청각이 구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에 기반한 것이다. 즉, 인간 중심의 설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샘플링 구조—플랑크 단위 체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마치 창조주가 인간이라는 수신자의 한계를 고려해 우주를 최적화된 정보처리 구조로 설계한 듯한 인상을 준다.

3. 인간 중심 우주와 NASA의 조심스런 암시

NASA를 비롯한 우주과학 연구 기관들은 더 이상 우주가 단순한 물리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

보 처리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우주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물론 이것이 가상 현실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주가 하나의 정밀한 정보체계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간의 인지 구조와 조응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양자 역학에서 발견한 우주는 시간과 공간조차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 단위를 지닌다. Pexels.com

NASA가 발표한 보고서 중 일부에서는 ‘인간의 인식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주의 구조가 설명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물리학의 최신 흐름, 즉 ‘관측자 중심 우주론(observer-based cosmology)’과도 연결된다. 사람이라는 존재 없이는 우주의 의미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사람의 관측이 곧 현실을 구성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의 창조론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세기 1:27), “주의 손

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시편 8:3-4). 이 구절들은 창조의 중심이 ‘인간’임을 강조한다. 최신 물리학 이론들이 이러한 성경적 진술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한 일이다.

4. 결론: 설계된 우주, 인간은 그 정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무작위한 혼돈의 결과물이 아니다. 오히려 정밀하고도 지능적인 설계의 산물이며, 그 구조는 디지털화된 정보 단위—플랑크 단위로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의 감각과 인식,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는 창조주가 인간을 우주의 수신자, 그리고 창조의 정점으로 설계했음을 암시한다. 성경은 이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최신 과학이 밝혀내는 진실은, 결국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말씀과 깊이 연결된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느끼는 질서, 구조, 정보, 그리고 존재의 목적은, 단순한 물리 법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에 의한 것이다.

이 칼럼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겸손히 되새겨야 한다. 인간은 단지 생물학적 우연의 산물이 아닌, 거대한 우주 속에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그리고 그 존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화된 우주는, 바로 그 인간을 위한 맞춤 설계였음을.

말씀 팔찌

손목 위의 은혜

간편하게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올리면
바로 성경경험이...

01 말씀팔찌
02 말씀팔찌
03 말씀팔찌
04 말씀팔찌

\$13.99

개인 및 소량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입가능
50개이상 단체주문은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 단체주문 상담환영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하루의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로고나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용으로 추천!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법!
간편하게 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지금 경험해 보세요!


문의
기독일보 정다혜 실장 (213-434-1170)
Email : chdaily1a@gmail.com
www.j1mart.com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0
3부 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청년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충현선교교회 YouTube

He is Risen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날 모두 한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축하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손창민 담임목사

■ Worship Hours

주일 1부 8:00 AM(통역제공)
주일 2부 9:30 AM(통역제공)
주일 3부 11:15 AM(통역제공)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월~토 5:30 AM
EM 9:30 AM/ 11:15 AM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9:30AM/11:15AM
초등부(KIDZ1, KIDZ2) 9:30 AM & 11:15 AM
중고등부(ROOTS) 9:30 AM & 11:15 AM
한어청년부(CEYA) 11:15 AM
영어청년부(KARDIA) 1:00 PM

www.churcheveryday.org

에브리데이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admin@churcheveryday.org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씨니김 담임목사

플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나는 일터선교사입니다" 저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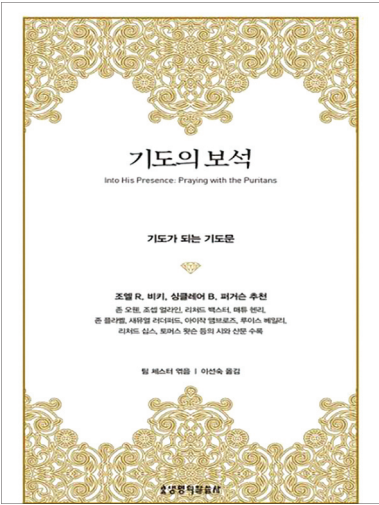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쓰고 삶 공부 오후 7:00
은혜로 물든 아침 묵상 (월~토) 오전 9:00
묵장 모임: 매주일 예배후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청교도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는 은혜

팀 체스터가 골라 엮어낸, 청교도 기도문



기도의 보석

팀 체스터 | 이선숙 역 |
생명의말씀사 | 288쪽 |
23,000원

삶의 기쁨 속에서만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한 위대한 청교도들의 기도 80편 기도가 되는 기도문

조엘 R. 비키, 싱클레어 B. 퍼거슨 추천
개인 기도와 공적 기도에 도움이 되는
청교도 기도 모음집
존 오웬, 조셉 얼라인, 리처드 백스터, 매튜 헨리, 존 플라벨, 새뮤얼 러더퍼드, 아이작 앰브로즈, 루이스 베일리, 리처드 심스, 토머스 왓슨 등의 시와 산문 수록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문을 읽는 것에 큰 유익이나 흥미를 못 느꼈던 때가 있었다. 기도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때론 은밀하고 친밀하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드린 개인의 기도 또는 공동체적 기도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기도문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셨다. 또 최근 아서 베넷이 엮은 <기도의 골짜기: 위대한 청교도의 삶에서 길어 낸 기도 모음집>을 읽고 목상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유익을 누린 터라(북 있는사람, 2018), 팀 체스터가 엮은 책인 <기도의 보석: 기도가 되는 기도문>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다.

사실 ‘읽었다’고 말할 수 없는 장르의 책이다. 이 책은 부제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가 되는 기도문’이다. 기도하기 위한 기도문이고,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모범이다. 원제는 《Into His Presence: Praying with the Puritans》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부제는 ‘청교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이 책은 청교도를 사랑하는 수많은 목사 및 저자들의 추천을 받았다: 조엘 비키, 싱클레어 퍼거슨, 크리스토퍼 애쉬. 또 청교도적 신앙을 노래로 고백하기를 희망하는 소비린 그레이스 뮤직 밥 코플린의 추천도 받았다.

저자가 소개한 대로 청교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어서, 조셉 얼라인 같은 사람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은 깊이가 있다. 충분히 마음 깊은 곳까지 길어내야 나올 수 있을 만한 표현과 고백과 울림이 있다.

이 책은 먼저 삼위일체께 나아가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①아버지를 찬양하는 기도 ②아들을 향한

경탄의 기도 ③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④감사의 기도 ⑤고백의 기도 ⑥봉헌의 기도 ⑦시험당할 때 드리는 기도 ⑧궁핍할 때 드리는 기도 ⑨근심할 때 드리는 기도 ⑩아플 때 드리는 기도 ⑪교회를 위한 기도 ⑫성찬을 위한 기도 ⑬하나님 말씀을 위한 기도 ⑭잃어버린 자를 위한 기도 ⑮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 16 매일 드리는 기도 등으로 이어진다.

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기도문을 찾아 읽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혹은 목상 집처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실제로 기도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하루에 한 편의 기도문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읊조리면, 매일의 기도를 빛여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청교도의 기도엔 몇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보석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복음의 가치가 잘 담겨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죄의 끔찍한 결과에 몸부림쳤다. 하나님 앞에서 다만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처절하게 고백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에 감격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사랑을 성령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또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가? 물론 아빠에게 단순하게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자녀처럼 구할 수도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려는 기도는 전혀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의 보석>과 같은 책으로 마음과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남들 앞에서 하는 기도만



팀 체스터(Tim Chester) 목사. ©유튜브

멋들어지고 유창하게 보이려 해서 는 안 된다.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청교도의 기도가 깊이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과 경배의 마음을 품었고, 오랜 시간을 통해 그 깊은 마음을 길어내 기도로 표출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죄를 자백하고 기쁨과 순종으로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볍고 무미건조하고 경박스럽지 않고 경건하고 진중하며 아름다운 수 있기를 원한다.

기도문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하기 힘들다. 팀 체스터가 고르고 골라 엮어낸 이 귀한 기도문이 정말 모든 독자의 ‘기도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기도의 보석같이 고귀한 축복과 유익을 기도하는 모든 이가 누릴 수 있기를.

조정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10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JOHN 4:10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025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주일
연합예배

▶ 일시: 2025년 4월 20일 오후 4시
▶ 장소: MBC방송국 2층 임마누엘대학 강당
340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6가&카타리나

진건호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55대 회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요 20:19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윤경의 ‘하늘바라기’와 소망의 빛

피조물의 감사 고백, 창조주에 대한 찬미 표현 작품

창조주 계시 감지하는 <씻담나무>
 <사계>, 삶 속 초현실적 은혜 영상
 고향 향한 동경, 소망의 빛 보여줘
 <하늘바라기>, 올려다 보는 구도

영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지만, 소홀히 여기기 쉬운 일이기도 하다. 일상에서 평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분주하고 끊임없이 방해받는 현실에서 점점 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리한 통찰로 자연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가가 있다. 영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화가 윤경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작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세상의 위태로움과 아름다움을, 삶의 변화를 찾아낸다. 그의 겨울 나무는 눈보라 치는 산길에 외로이 그 자리를 지키는 쓸쓸한 나무를 떠오르게 한다. 주위는 추위에 얼어 있고 황량하다. 이 시간은 도무지 끝이 없을 것만 같다.

여기에 반전(反轉)이 일어난다. 어둠 속의 반짝임이 그것이다. 공간 너머에서 오는 빛은 추위에 떠는 나무를 비춘다. 나무는 자신을 추스르며 이 빛을 반긴다.

이런 회복은 〈식덤나무〉 연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겨울 나무들이 추위의 시간에서 벗어나 환희의 순간을 만끽하고, 무지갯빛 색깔들은 자신의 기쁨을 발산하고 있다.

여기서도 빛은 주인공 역할을 맡는다. 빛이 있기에 핏기를 잃은 피조물들이 생기를 얻는다. 나무들은 계절의 리듬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작가가 나무들을 보며 창조주의 계시를 감지하는 것이 여간 흥미롭지 않다.

영상 미디어로 제작된 〈사계〉를 보면 봄·여름·가을·겨울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지나간다. 이미지는 모두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구도이다. 동일한 장면에 조금씩 색상만 바뀐 것인데, 각각의 장면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 용모가 달라진다. 잔잔한 선율에 실려 봄에는 ‘민들레 씨앗’, 여름에는 ‘물방울’, 가을에는 ‘반딧불이’, 그리고 겨울에는 ‘눈싸라기’가 흩날린다.

《사계》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민들레 씨앗, 물방울, 반딧불, 하얀 눈은 그에게 형태 없는 내용, 곧 ‘소망의 빛’을 뜻한다. 일상적인 현실에 겹쳐진 초자연적 사실, 즉 우리의 삶에 내려진 초현실적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만일 그런 초현실적 은혜가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의 삶은 얼마나 곤궁해질 것이며

▲윤경, Praise the Lord,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17.

암담할 것인지... 그것은 마치 출구없는 밀실에서 발버둥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면에 각인된 소망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꽃을 본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가 별들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별들이 그가 사랑하는 장미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는 장미를 볼 수 없지만 별들이 그에게 장미를 기억나게 해주기에 별들이 아름다운 것이다.

사물은 정신적 작용을 동반한다. <사계>에 등장하는 민들레 흙씨, 물방울, 반딧불, 하얀 눈은 어떤 면에서 고향에 대한 동경을,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도약시키는 소망의 빛을 일깨워준다.

밤이 깊을수록 빛의 존재는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하늘바라기>에서 보듯, 작가의 작품은 위로 올려다본 구도를 취한 까닭에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빛에 집중된다.

“한결같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올리는 나뭇가지처럼 곳곳이 살아내라고 내 등을 두들기는 저 나무 기둥처럼 오늘도 나는 저 나무들처럼 하늘바라기가 되어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작가가 밥 풍경을 선택한 것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무자비한 폭우와 태풍, 눈보라가 치는 경험, 때로는 끔찍한 가뭄과 같은 수많은 재해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내면의 결핍에서 오는 위험일 것이다. 플라톤이 인간을 ‘새는 물병’으로 비유했듯이, 우리의 갈망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물병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붓지만 결코 끝까지 채워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반복으로는 우리의 동경도 마찬가지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며’, ‘데마르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영적인 이미지(사 25:6-7)를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목전의 산적한 문제가 더 절실하게 와 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갈망은 다른 지점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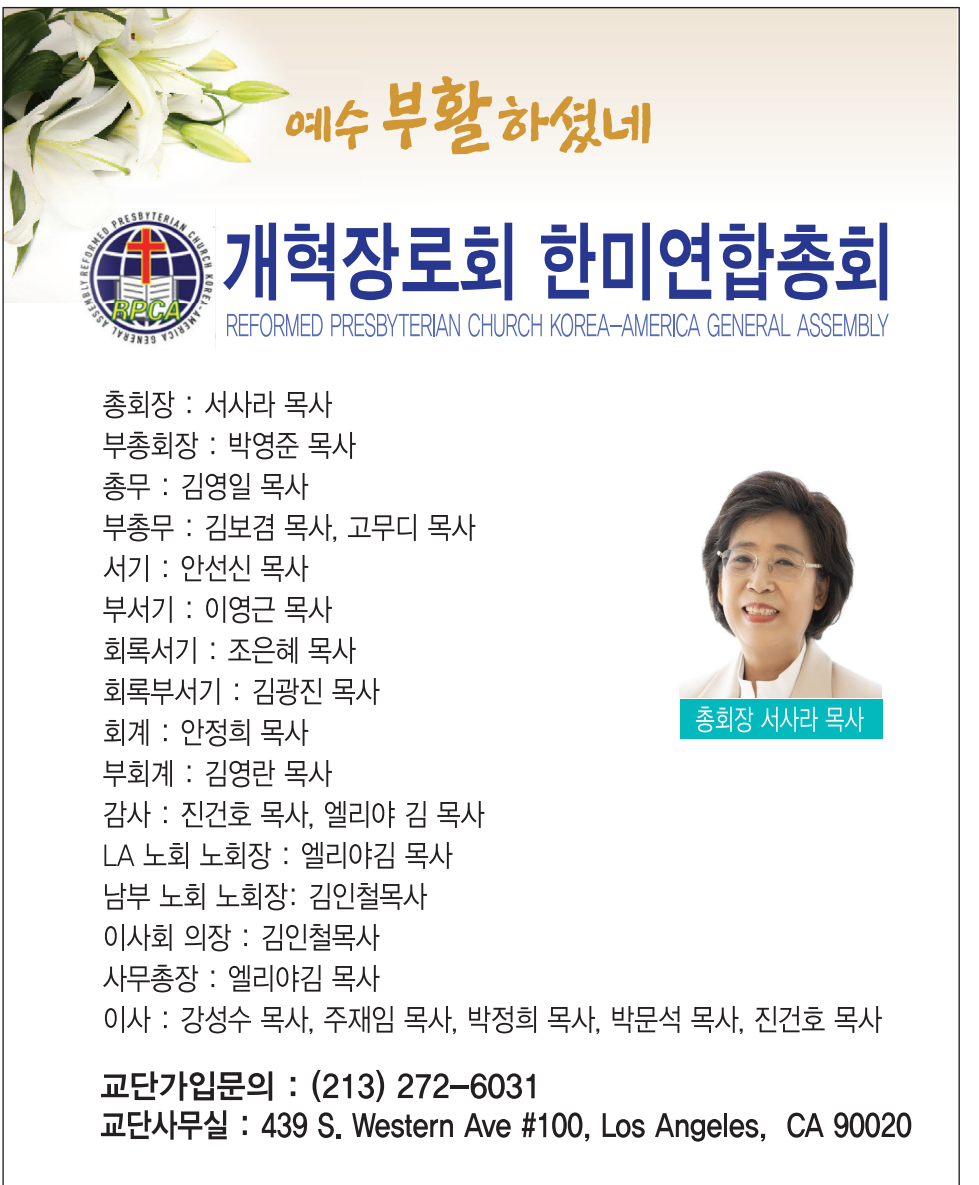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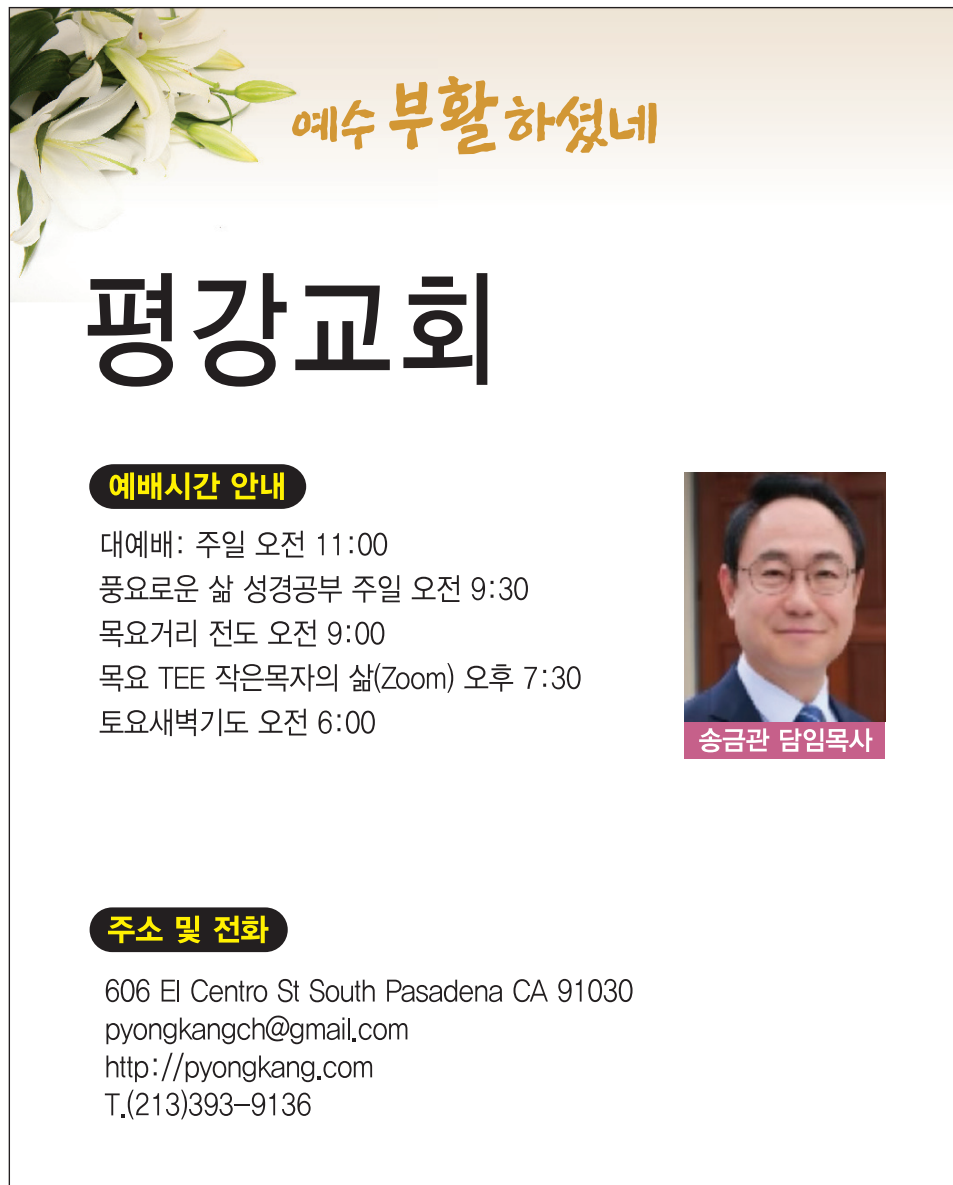
C. S. 루이스가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밝혔듯, ‘아슬란’이 올 때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대지에는 얼음이 깨지고 추위가 걷히는 동시에, 나무에서 잎이 들고 봄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왕 ‘아슬란’으로 인해 죽음에 지배하던 곳에서 생명이 승리를 거둔다는 즐거리로 되어 있다.

루이스는 소설을 쓸 때 이사야의 장면을 상상하였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사 55:12)”.

윤경이 선택한 것은 겸손하게 인간의 본분을 되찾는 것, 곧 피조물로서 감사의 고백과 창조주에 대한 찬미에 집중한다. 창조주에 대한 찬미는 그분의 영화로운 위엄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낸다. 하나님의 위엄이 구주이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더 깊은 경이감을 느끼며 그분을 더 즐거워하게 된다.

작품 전체에 이런 고백과 감탄의 멜로디가 스며 있다. 계절의 감각을 살린 것, 밤하늘 풍경, 낭만적인 호수, 반짝이는 별빛 등 그의 작업은 여러 모습으로 제작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창조주를 기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의 작품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고(시 19:1), 빛은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온 세상에 빛과 온기를 가져다주며, 온전한 나무 형상은 회복된 인간을 각각 상징하고 있다. 요컨대 총만하고 흘러넘치고 아낌없이 나누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셈이다.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EM & 대학부예배	주일 오전 10: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45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1: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www.beautifulchurch.org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이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담임목사 김 경 진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
(행2:42)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9:00 친교실
2부 예배	오후 12:30 본당
젊은이 예배(한국어)	오후 2:00 Edmonds Chapel
주일학교 영, 유아부	오후 12:30 Nursery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오후 12:30 교육관
한국어학교	오후 12:30 교육관
주중모임 주중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SNS & YouTube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온라인 예배 및 설교 시청 안내

교회웹사이트: www.joyfulccc.com
기독일보: <https://kr.christianitydaily.com>
YOUTUBE 채널명: 기쁜우리교회
검색어: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기쁜우리교회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Office@joyfulccc.org 818-662-0400

In Christ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안애교회
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 3부(EM 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예배 금요일 오후 7:45 / 새벽예배 월, 금 오전 5:30, 토 오전 6시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애교회 ICC

www.icccla.org
icccl.office1@gmail.com

T 818.363.5887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속 한국인의 소중한 마음. 투표로 보여주세요

Represent the True Hearts of Koreans
around the World through Your Vote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Election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5. 4. 4. ~ 2025. 4. 24.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 2025. 4. 24.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5. 5. 20. ~ 2025. 5. 25.

매일 08:00~17:00 08:00 -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differ by diplomatic mission.

투표장소 Voting Place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 신분증명서(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명서는 필요없음
-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go.kr), and Overseas Korean Agency(oka.go.kr).